

# 바다로 간 자전거



이진형  
한국어촌어항협회 마케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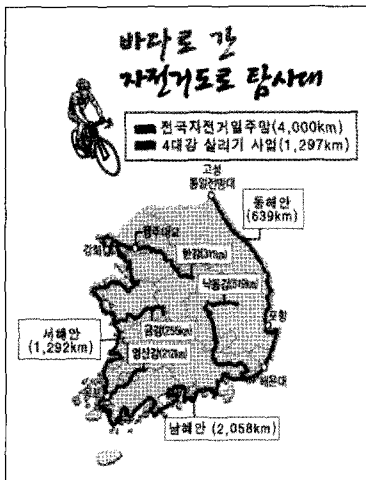
## 들어가며

해안선 자전거 순례코스 개발 사업은 자전거 타기를 대중화하고 어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해안가에 가장 가까운 자전거 도로를 발굴함과 동시에, 주변 어촌 및 어항에 대한 취재를 통해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어촌 및 수산 관광자원들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홍보수단이 필요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전 국민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를 어촌과 연계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

디어가 이 사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일단 사전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를 조사해보니 총 13,350km이나 육지부와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만 포함할 경우 약 4,000km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이 4,000km를 하루에 80~100km 정도 자전거로 주행한다고 볼 때 약 60일간의 탐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원활한 탐사 진행을 위해서는 자전거 코스를 개발할 자전거 라이더, 코스와 연계한 어촌 및 수산관광자원들을 취재할 여행작가, 그리고 자동차로 이동하며 이들을 후방 지원할 지원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사사례로 국토순례대행진, 백두대간종주, 제주도 올레코스 등을 분석하면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화제성을 창출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과물을 매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면서 전 국민들이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보자, 이 코스와 어촌 및 어항 등의 수산관광자원들을 연계시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전국 해안선 자전거 순례코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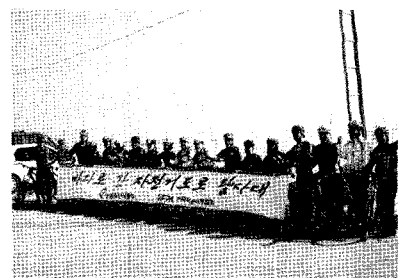
## 두바퀴로 전국 바닷가를 달린다

이번 사업의 주요 과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강화도를 출발하여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의 전국 해안가를 U자형으로 끊임없이 이어서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전거 코스를 개발한다고 해서 새롭게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거나 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하는 코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농로, 임도, 소로 중에서 해안가와 가장 가까운 길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코스를 찾은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닷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탐사대 활동을 바다여행(www.seantour.com) 사이트와 동아닷컴 해피바이커(hike.donga.com) 사이트에 등록하여 홍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탐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 오늘 탐사한 것은 내일 온라인에 올리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셋째, 개발된 코스와 이 코스와 연계한 어촌 및 어항 등의 수산물관광자원들을 화보집으로 소개하여 어업인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해안선을 잇는 자전거 코스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포커스 등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동아일보 2면에 '아름다운 우리 항구 이으면 4000km 자전거 길'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날에는 삼천리 자전거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였다. 10월 15일 드디어 탐사대의 긴 여정이 강화대교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일보에서는 직접 발대식 현장에 나와 취재를 해 갔고, 서울시 강서구 자전거 연합회 회원들이 강화대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와 탐사대를 응원해 주었다.

간단한 발대식을 마치고 탐사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도상으로 대략적인 탐사경로를 미리 선정해 놓긴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니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로들이 많이 있었다. 코스 개발의 기본 명제는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길을 찾아내는 것. 일단 눈에 보이는 길이 있으면 들어갔다 길이 끊어지면 다시 빠져나와 들어갔던 시점에서 다시 탐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했다. 길이 있어 보이는 곳은 무조건 간다라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험한 비포장도로를 계속 달리던 자전거 및 차량의 타이어 펑크는 기본이고, 지원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일도 부



지기수였다. 자전거를 따라가던 지원차량이 차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임을 확인하고 아슬아슬한 후진을 하는 일도 너무 많아, 차량운전을 맡았던 직원은 후진의 달인이 되었다. 강풍으로 인해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어려워 가다 서다를 여러 번 반복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더 멋진 사진을 얻기 위해 조망이 좋은 곳을 찾아 헤맸으며,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다. 생생한 어촌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작업 중인 어민들의 사진을 찍다가 험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전거 바퀴살과 프레임이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하여 긴급 수리를 해야 하는 사건도 있었다. 강화도를 출발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다음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각 코스 구간 하나하나에 조금이라도 해안선과 가까운 길을 찾아내려는 탐사대의 땀방울이 스며져 있다.

탐사대의 이런 활동은 다음 날 바로 해양관광정보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 사이트와 동아닷컴 해피바이커(bike.donga.com) 사이트에 올려져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오늘 탐사한 활동사항을 내일 바로 온라인에서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늦은 밤까지 원고와 사진을

정리해서 보내준 탐사대의 열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낮에는 하루 100km를 넘나드는 강행군을 펼치고, 밤에는 원고와 사진 작업을 하느라 고생한 탐사대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이렇게 개발된 코스는 '두바퀴로 바닷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화보집으로 발간되었다. 전체 구간을 총 52개 구간으로 나뉘 각 구간별로 이 책 한권이면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맛보기로 전체 52개 구간 중 한 구간인 '삼척 월천항~삼척 증산해수욕장' 구간을 살펴보면, 4페이지에 걸쳐 여행작가가 해당 구간을 직접 탐사하며 취재한 생생한 사진과 여행기를 통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어지는 2페이지에는 해당 구간 내에 있는 어항, 어촌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을 소개하여 어촌으로의 관광을 유도하고 있으며, 맛집·숙박업소·주변 여행지 등을 함께 소개하여 여행일정을 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로 해당 구간을 달릴 여행객들을 위해 상세한 코스 가이드와 등고표, 코스 지도 등을 실어 누구라도 탐사대가 지나온 코스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52개 구간 전체에 걸쳐 많이 알려진 유명 여행지 위주가 아니라 꼭 한 번 가볼만한 어촌 및 어항 위주의 상세한 정보들이

▶ 해안선 자전거도로 탐사대

번호	탐사 일자	탐사 코스	작성 일자	날짜	조회 수
37	탐사 36일차	강릉 목계 - 음진항 - 삼국항 - 경동항 - 민안항 -	윤영자	2009.12.09	4
36	탐사 35일차	주말 호곡항구 - 남간항 - 양양 해변	윤영자	2009.12.07	5
35	탐사 34일차	양양 실랑항 - 강호항 - 4월대반	윤영자	2009.12.04	5

바다여행(www.seantour.com)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2	탐험 44일차 - 동해안 통일 시대의 관문 고성군	해피바이커	2009-12-14	3,907
41	탐험 39일차 - 장사항 - 용담 전망대	해피바이커	2009-12-11	2,350
40	탐험 38일차 - 여도항 - 유영항	해피바이커	2009-12-10	1,271
39	탐험 37일차 - 남해항 - 풍사항	해피바이커	2009-12-09	1,138
38	탐험 36일차 - 강릉 목계 - 남해항	해피바이커	2009-12-08	494
37	탐험 35일차 - 추암 송해리 - 대간항 - 망상 해변	해피바이커	2009-12-07	1,515
36	탐험 34일차 - 삼척 월천항 - 강호항 - 추삼해변	해피바이커	2009-12-04	2,117
35	탐험 33일차 - 호포항 - 오산항 - 김동항	해피바이커	2009-12-03	1,215

동아닷컴 해피바이커(bike.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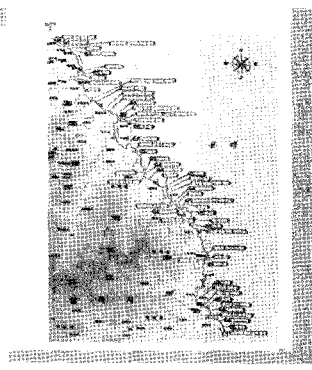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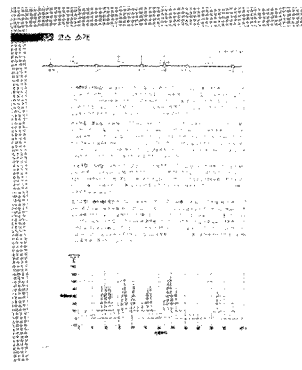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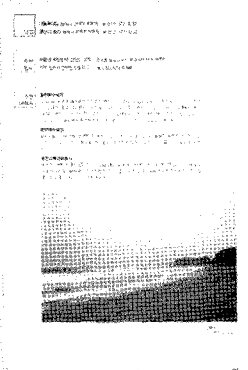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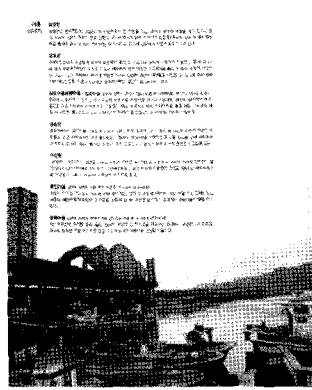


### 한 초인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을 삼척 월전항 ~삼척 중산해수욕장

2009년 11월 19일(수) 오후 2시 30분, 삼척 월전항에서 출발하여 중산해수욕장까지 10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다. 이날은 맑고 시원한 가을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출발지인 월전항은 삼척시 북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해변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중산해수욕장은 삼척시 남동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변으로, 넓은 모래사장, 맑은 바다,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이날의 자전거 여행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 탐사 여행기



### 어촌 및 숙박정보 코스가이드 및 지도

수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전거, 도보, 자동차로 여행할 사람 누구에게나 이 화보집에 실려 있는 여행정보를 통해 무심코 지나쳐 온 숨어있는 아름다운 어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큰 보람이겠다.

### 마무리하며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코스를 발굴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해안선에 있는 우리의 어촌과 어항을 취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임무에 충실히 임해준 덕분에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탐사과정을 통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과 강원도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코스개발

현장에서 코스 안내를 해 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해안선 자전거 순례코스 개발 사업은 전국의 해안선을 일반 국도가 아닌 임도, 농로, 소로 등을 활용하여 있는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니며 향후 개발된 코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한 GPS 좌표를 이용해 GIS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다녀온 코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안선 자전거 순례대회를 매년 개최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해안선 자전거 코스는 자전거 라이더 뿐 아니라 우리 어촌과 어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아주 귀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 믿으며, 프로젝트로 발굴된 자전거 코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어촌 및 어항의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 자전거로 해안선을 안전하게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들이 잘 정비되어 계속 더 좋은 코스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